

출장보고

I. 출장개요

1. 출장목적

- 일본 정부는 환태평양경제연대협정(TPP) 참가를 둘러싸고 산업간·지역간 논쟁이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TPP 참가에 의해 큰 피해가 예상되는 농림수산업 부문에서는 이에 대한 반발이 강하다.
- 특히 농림수산업 종사자는 ‘TPP에 의한 시장개방’과 ‘식량자급률 향상’을 양립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또한 지방에서 고용 감소와 관련산업 쇠퇴를 우려하여 반대하는 입장이다.
- 이와 관련하여 일본의 농업관련 법인과 주식회사 등을 회원으로 하는 ‘일본농업법인협회’는 2011년도 정기총회를 맞이하여 ‘한국의 시장개방과 농업정책 전개’라는 주제로 초청강연을 실시하며, 이를 위해 현지출장을 실시한다.

2. 출장자

- 김태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3. 출장일시 및 장소

- 2011년 3월 2일(수)~4일(금) 2박3일
- 일본 도쿄
- 단, 출장비용은 주최기관이 전액 부담

4. 강연개요

- 주제 : 한국의 시장개방과 농업정책 전개
- 일시 : 2011년 3월 3일(목) 15 : 10 ~ 16 : 40(90분)
- 장소 : 일본 도쿄 아카사카뷰호텔 대회의실

5. 면담자

마츠모토 류헤이(松本 隆平)	농림수산성 국제부 국제경제과 국제교섭관
윤명중	주일한국대사관 농무관
타니구치 노부카즈(谷口 和信)	동경대학대학원 농업경제학과 교수
이마무라 나라오마(今村 奈良臣)	JA총합연구소 소장
후쿠하라 토시히데(福原 俊秀)	농사조합법인 아그리코 대표
봇타 토시히로(仏田 利弘)	봇타농산 대표
사노 타이조(佐野 泰三)	카고메주식회사 상무
이토 히데오(伊藤秀雄)	일본농업법인협회 부회장/이즈누마농산 대표
콘노 카즈노리(紺野 和成)	일본농업법인협회 전무이사
다카하시 가즈다카(橋本 和孝)	일본농업법인협회 상무이사
키타무라 사토시(北村 聡)	일본농업법인협회 정책과장
아라이 다카시(新井 孝)	일본농업법인협회 총무과장

출장일정

일자	일정	비고
3월 2일(수)	출국(김포-하네다) KE2707(09:00~11:05) 15:00~ 농림수산성 국제부 마츠모토 류헤이(松本 隆平) 국제교섭관 18:00~ 주일한국대사관 윤명중 농무관	[숙소] 아사쿠사뷰호텔 03-3847-1111
3월 3일(목)	10:00~ 동경대학 타니구치 노부카즈(谷口 和信) 교수 14:00~ 일본농업법인협회 초청강연 “한국의 시장개방과 농업정책 전개”	상동
3월 4일(금)	10:00~ JA총합연구소 이마무라 나라오마(今村 奈良臣) 소장 귀국(하네다-김포) KE5710(15:30~18:00)	

II. 출장결과

1. 강연요지

- 한국은 고도성장을 지속하기 위하여 시장개방을 통한 무역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WTO DDA협상이 지체되고 있는 가운데 FTA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결과로 FTA 체결면에서 일본을 선행하고 있다. FTA 농업대책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성과도 있지만 한계도 있다.
- 시장개방에는 빛과 그늘 등 양면성이 있다. 무역창출, 경쟁촉진, 구조조정인 성과이며, 글로벌 불균형의 심화가 그늘이다. 특히 한국에서 산업간 격차와 지역간 격차가 확대되는 것이 문제이다. 비농업부문과 농업부문간의 격차, 도시농촌간 소득격차, 농가계층간 소득격차 등이 급속하게 확대되는 것이 문제이다.
- 한국의 FTA 추진현황을 보자.
 - 합의 또는 발효 중인 국가는 칠레를 비롯하여, EFTA, 싱가포르, 미국, ASEAN, 인도, EU, 페루 등이다.
 - 교섭 중인 국가는 일본을 비롯하여, 캐나다, 멕시코, 콜롬비아, 호주, 뉴질랜드, GCC, 터키 등이다. 세계 중에 확대되고 있으며, 인접국가와의 FTA, 즉 한·일, 한·중, 한·중·일이 부진한 것이 특징이다.
 - 한·일 FTA는 2005년 협상 중지이후 지난해 실무자급 교섭이 재개되었으나 진전을 보이지 않고, 한·중 FTA는 공동연구 이후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한·중·일 FTA는 현재 공동연구 중에 있다.
- FTA에 의한 농업부문 영향은 칠레, 미국, EU 등이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농업대책은 칠레와 미국과의 대책이 현재 실시 중에 있다. 한·칠레 FTA 농업대책은 2004~10년간 1조 2,0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한 바 있고, 한·미 FTA 농업대책은 2008~17년간 20조원 예산을 투입 중에 있다.
- 농업대책의 추진방식에는 몇가지 특징이 있다.
 - 기본적으로 ‘선 대책·후 개방’의 원칙에서 영향이 예상되는 품목에 대하여

① 피해 최소화, ② 경쟁력 향상, ③ 구조조정과 경영안정 등이 목적이다.

- 주요대책은 ① 품목별 경쟁력 향상, ② 농업의 체질개선, ③ 단기적인 피해 보전·폐업지원 등이다.
- 재원은 'FTA 기금'이다.
- 근거법률은 'FTA 체결에 의한 농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2004. 3. 22)이다.

□ 한·칠 농업대책을 보면, 경쟁력향상대책은 어느 정도의 규모확대와 생산성 향상을 실현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소득보전 직접지불은 발동요건의 엄격성이나 폐업지원과 관련하여 보전되지 않았다.

- 폐업지원은 몇가지 문제가 있다. 시설포도, 키위, 복숭아 등 3품목에 대해 폐원을 지원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한 효과는 있으나, 폐원 대체작물의 가격하락을 초래한 면이 있고, 또 폐원대상 품목의 신규진입이 나타나는 등 모럴해저드도 발생하고 있다.
- 전체적으로는 생산감소, 산업축소를 초래하고 있다.

□ 한·미 FTA 농업대책을 보면, 피해예상품목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유제품 등 축산과 사과, 포도, 감귤, 배 등 과수에 집중한다. 발효 15년제 피해예상액(생산감소액)은 1조 361억원이며, 이 중 축산이 70%를 차지한다.

- 한·칠레 농업대책은 전액 FTA 기금으로 충당하였으나, 한·미 농업대책은 FTA기금 비중이 대폭 축소하였다.

□ FTA 농업대책에도 불구하고 한국농업에 나타나는 현상은 다음 세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 도농간 소득격차가 확대되는 점이다. WTO 체제가 출범한 1995년부터 도시근로자와 농가간 소득격차가 발생하기 시작하여 2006년 이후, 농가소득이 감소하고 있고, 2009년 농가소득은 도시근로자의 65% 수준이다.
- 도농간 소득격차가 확대하는 가운데 농가계층간 소득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5분위 소득배율을 보면 1998년 7.2배에서 2008년 11.2배로 확대되고 있다. 저소득계층에 대한 소득대책이 과제이다.
- 생산의 축소이다. 과수의 경우 배, 포도, 감귤, 복숭아 등은 2000년대 중반 이후 재배면적이 감소하고 있다. 단지 사과는 1990년대 전반 이후 감소하기 시작하였으나 2000년대 중반 이후 약간이나마 증가하고 있다.

- 요약하면, 국가 성장전력으로 동시다발적 FTA를 추진하고 있는 한국은 대표적인 피해산업인 농업부문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피해보전과 폐업지원, 장기적으로는 경쟁력 강화 등을 도모하고 있다. 비용면에서 보면 경쟁력 강화에 집중하고 있으며 그 효과의 확인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향후 정책의 평가나 검증이 필요하다.
- 단기대책인 소득보전이나 폐업지원은 상쇄관계에 있기 때문에 상정한 대로 실행되지 않는 면이 있다. 단기대책으로서의 한계가 있다. 단지 폐업지원에 대해서는 가격안정에는 기여하지만 산업축소, 자급률 하락, 대체작물의 가격 하락 등을 초래하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 소득격차 확대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재원의 제약이 있지만 ‘FTA 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FTA에 의한 손익관계를 명확하게 확정된 후, 이익을 보는 그룹에서 손실을 입는 그룹으로 소득재분배대책을 검토해야 한다.
- 글로벌화의 영향은 수입국에서 크게 나타난다. 한중일 3국은 농산물 수입국이다. WTO나 FTA가 진전할수록 3국 모두 소득격차 확대, 식량자급률 하락, 농업축소 등 공통의 과제에 직면할 것이다. 3자간의 FTA 교섭시에는 이러한 점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2. 구입자료 목록

- 細内信孝、「新版コミュニティ・ビジネス」、学芸出版社、2010、1,800円
- 細内信孝、「コミュニティ・ビジネス」、中央大学出版部、1999、2,000円
- コミュニティ・ビジネス・ネットワーク、「コミュニティ・ビジネスのすべて」、きょうせい、2009、2,190円
- 石田正昭、「農村版コミュニティ・ビジネスのすすめ」、家の光協会、2008、1,700円」
- JA全中、「世界と日本の食料・農業・農村に関するファクタブック2011」、2011、600円（税金含み）
- JA全中、「JAファクタブック2011」、2011、600円
- 「2011年食育カレンダー」、グレイン・エス・ピー、2011、800円

宇沢弘文、「社会的共通資本」、岩波書店、2000、800円
内田節、「共同体の基礎理論」、農文協、2010、2,600
鈴木宣弘、「新たな食料・農業・農村基本計画の検討経緯と具体化に向けて」、大成出版社、2010、1,400円
村田武他、「食料主権のグランドデザイン」、農文協、2011、2,600円
生源寺真一、「農業がわかると社会のしくみが見えてくる」、家の光協会、2010、1,200
葛谷栄一、「都市農業を守る」、家の光協会、2009、1,600円
合田素行、「中山間地域への直接支払いと環境保全」、家の光協会、2001、1,800円
田中満、「農産物直売所が農業・農村を救う」、倉森社、2010、1,600円
葛谷栄一、「農ある地域からの国づくり」、全国農業会議所、2009、1,800円
風見正三他、「コミュニティビジネス入門」、学芸出版社、2009、2,300円
服部信司、「アメリカ農業・政策史1776-2010」、農林統計協会、2010、2,400円
本間正人、「コーチング入門」、日本経済新聞社、2006、871円
谷口信和他、「水田活用時代：減反・転作対応時代から地域産業興しの拠点へ」、農文協、2010、2,730円
本間正明他、「コミュニティ・ビジネスの時代」、岩波書店、2003、2,310円
園利宗、「現場からのコミュニティ・ビジネス入門」、連合出版、2004、1,890円
「勝つための農業ビジネス」、イカロス出版、2011、1,500円

(이상)